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담 당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서희원 팀장, 이성운 부장, 문규경 간사, 최윤석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보도일자 : 2023. 05. 23. (화) (엠바고 당일
10시 반)

배포일자 : 2023. 05. 23. (화) (엠바고 당일
10시 반)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
3년간 국회의원 재산 7.3억(부동산재산 3.2억) 증가
-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 취지 발언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 현황 발표 : 서희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2020년 재산신고 내역과 2023년 재산신고 내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재산 및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2.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①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 ② 3년간 평균 부동산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 ③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업 의심되는 의원 ④ 의정활동 기간(3년간) 국회의원의 부동산 추가 매입 현황 등입니다.
3.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5억원에서 2023년 신고 재산 평균 34.8억으로 7.3억 증가(26.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2020년 14.8억에서 2023년 21.2억으로 6.4억 증가(43.5%)했고, 국민의힘은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7억으로 14.8억 증가(35.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20년 16.5억이고, 2023년 19.7억으로 3.2억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2억에서 13.8억으로 2.6억 증가(23.4%)했고, 국민의힘이 22.3억에서 28.3억으로 6.1억 증가(27.4%)했습니다.
5.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 즉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으로 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를 설정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국회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109명은 경실련 기준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60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등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60명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 나머지 49명은 실사용 및 임대여부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경실련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과다 부동산 보유 46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답변 과정에서 5명은 부동산

을 실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볼수 있듯, 우리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한다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 기간(3년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하여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기준에 부합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중에서도 ①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②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③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1년도에 3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22년도에 4명(국민의힘 4명), 23년도에 5명(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12명(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에 ‘추가매입한 주택에 대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외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여부, 취득경위 등을 밝혀 투기의혹을 검증해야 합니다.
7.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2024년에 열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 운동을 예고하며, 각 정당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행위를 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 무주택자가 아님에도(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I. 취지 및 배경

-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선거 때 후보자등록을 위해 신고한 재산분석부터 매년 신고한 재산내역을 분석발표 해왔음.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목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지만, 1년에 한번 재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도 취득경위 등의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않아 시민들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2020년 재산신고 내역과 2023년 재산신고 내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재산 및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함.
- 한편, 오늘 조사 내용인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동산 추가 매입자, 과다 부동산 보유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II.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전체임. 21대 국회의원 중 2020년 대상자는 총 300명이며, 2023년 대상자는 총 296명임.
- 조사내용
 - ①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및 전체재산 증가 상위 10명
 - ② 3년간 재산 및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0명

- ③ 2023년 현재 기준 과다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업 의심 중인 의원
- ④ 의정활동 기간(3년간) 국회의원의 부동산 추가 매입 현황

○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되고 있는 재산신고 내역을 참고했음. 20년 자료는 3월 정기공개 자료(기존 공직자의 경우)와 9월 수시공개 자료(최초 공직자의 경우)를 합쳐서 사용했고, 23년 자료는 3월 정기공개 자료를 참고했음.

III. 분석 결과

■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증가액과 3년간 재산증가 상위 10명

1. 21대 국회의원 3년간 총재산은 27.5억에서 34.8억으로 7.3억 증가,

- 제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5억원에서 2023년 신고 재산 평균 34.8억으로 7.3억 증가(26.5%)했음.
 -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4.8억에서 2023년 21.2억으로 6.4억 증가(43.5%)
 - 국민의힘은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7억으로 14.8억 증가(35.1%)
 - 정의당은 2020년 5.4억에서 2023년 8억으로 2.6억 증가(47.1% 증가)

[표 1]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2020년	2023년	증감액	증감율	
더불어민주당 (174명 => 169명)	1,479,610	2,122,879	643,269	43.5	
국민의힘 (103명 => 112명)	4,199,118	5,674,827	1,475,709	35.1	
정의당 (6명 => 6명)	549,527	807,903	258,376	47.0	
국민의당 (3명 => 0)	957,469	-	-	-	
열린민주당 (3명 => 0)	1,777,907	-	-	-	
기본소득당 (1명 => 1명)	100,689	534,144	433,455	430.5	
시대전환 (1명 => 1명)	1,454,242	1,246,659	-207,583	-14.3	
무소속 ¹⁾ (9명 => 7명)	13,614,181	4,253,149	-9,361,032	-68.8	
총 합계 (300명/296명)	합계	825,547,179	1,030,747,456	205,200,277	24.9
	평균	2,751,824	3,482,255	730,431	26.5

주1) 무소속 의원의 경우 2020년 당시 무소속 의원 중 박덕흠 의원(559.8억), 박병석 의원(49.1억), 윤상현의원(165.9억), 이상직의원(212.7억), 홍준표 의원(33.7억) 등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후 복당, 사퇴 등으로 이후 무소속 명단이 변화되며 재산증감이 크게 나타남.

-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가구평균 순자산은 3.6억에서 2022년 4.6억으로 1억원 증가하여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3배나 됨.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재산은 부동산재산 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2] 3년간 국회의원, 국민 전체재산 증가액 비교

	2020년 전체재산	2023년 전체재산	증가액
국회의원	27.5억	34.8억	7.3억
국민	3.6억	4.6억	1억
	7.6배	7.6배	7.3배

2. 신고재산 증가액 기준 상위 10명

- 2020년 대비 2023년 신고재산 증가액이 많은 국회의원 10명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91.8억 증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3억 증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66.1억 증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44.4억 증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2억 증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2억 증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8억 증가),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24.7억 증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8억 증가), 김홍걸 무소속 의원(19.3억 증가) 순으로 나타났음.

[표 3] 21대 국회 3년간 재산 증가액이 큰 상위 10명

		2020년	2023년	증감액	증가율	변동 사유
박정	더불어 민주당	31,410,857	50,598,508	19,187,651	61.1	부동산 (25.6%) 증권 (405.2%)
윤상현	국민의힘	16,588,523	29,914,409	13,325,886	80.3	부동산 (7.2%) 증권 (286.6%)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1,620,401	8,282,030	6,661,629	411.1	부동산 (61.7%) 증권 (11210.9%)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318,915	4,763,308	4,444,393	1393.6	부동산(-9%) 예금및채권등(372%) 채무(-72%)
정점식	국민의힘	6,207,688	9,631,760	3,424,072	55.2	부동산 34.2%
박성중	국민의힘	6,400,227	9,818,659	3,418,432	53.4	부동산 43.7%
안병길	국민의힘	2,727,226	5,526,655	2,799,429	102.6	부동산 53.4% 증권 13.6%
김희재	더불어 민주당	3,923,615	6393435.0	2,469,820	62.9	부동산 -12.9% 예금및채권등(178%)

정진석	국민의힘	6,684,726	8,863,561	2,178,835	32.6	부동산 36.4% 증권 -0.5%
김홍걸	무소속	6,771,810	8,698,307	1,926,497	28.4	부동산 35.6% 증권 18.8%

-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이나, 부동산 재산 공시가 반영 또는 부동산재산 매각에 의한 것으로 보임.
 - 2019.12.3.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6.4. 시행)으로 비상장주식 실제가치 반영으로 액면가에서 신고되던 것이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으로 신고됨에 따라 증폭하였음.
 - 임종성 의원, 김희재 의원 등은 부동산재산이 감소하고도 재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재산 매도금액이 예금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는데 아파트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60%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축소신고가 불가피함. 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매도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재산 신고가액이 늘어나게 됨. 임종성 의원은 2022년 하남시 단독주택을 매도했다고 밝혔는데 신고한 재산가액은 8억700만원이지만 매도금액은 19억5천만원으로 확인됨. 마찬가지로 김희재 의원의 경우도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아파트를 2022년 2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매도 이전까지 신고한 재산가액은 13억95백만원이었음.
 - 박성중 의원도 보유하고 있던 양천구 단독주택의 경우 신고가액은 2022년 5억5천만원이었으나 2023년 재산공개때는 13억8천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힘

■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액과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0명

1.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16.5억에서 19.7억으로 3.2억 증가

- 제21대 국회의원의 2020년 부동산 재산 평균은 16.5억이고, 2023년 부동산 재산 신고 평균은 19.7억으로 3.2억 증가했음.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2억에서 13.8억으로 2.6억 증가(23.4%)
 - 국민의힘이 22.3억에서 28.3억으로 6.1억 증가(27.4%)
 - 정의당이 5억에서 8.7억으로 3.7억 증가(74.1%)

【표 4】 21대 국회의원 20년 신고재산

	2020년 부동산 재산	2023년 부동산재산	증감액	증가율
더불어민주당 (174명 => 169명)	1,119,300	1,381,513	262,213	23.4
국민의힘 (103명 => 112명)	2,225,384	2,834,908	609,524	27.4

정의당 (6명 => 6명)		502,428	874,710	372,282	74.1
국민의당 (3명 => 0)		1,094,484	-		
열린민주당 (3명 => 0)		1,362,119	-		
기본소득당 (1명 => 1명)		294,000	844,960	550,960	187.4
시대전환 (1명 => 1명)		1,909,838	1,640,100	-269,738	-14.1
무소속 ¹⁾ (9명 => 7명)		6,453,786	3,420,111	-3,033,675	-47.0
총 합계 (300명)	합계	494,645,130	582,659,556	88,014,426	17.8
	평균	1,648,817	1,968,444	319,627	19.4

주1) 무소속 의원의 경우 2020년 당시 무소속 의원 중 박덕흠 의원(559.8억), 박병석 의원(49.1억), 윤상현의원(165.9억), 이상직의원(212.7억), 홍준표 의원(33.7억) 등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후 복당, 사퇴 등으로 이후 무소속 명단이 변화되며 재산증감이 크게 나타남.

-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부동산재산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가구평균 실물자산은 3.4억에서 2022년 4.3억으로 0.9억원 증가하여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증가액이 국민 증가액의 3.6배나 됨.

[표 5] 3년간 국회의원, 국민 부동산재산 증가액 비교

	2020년 전체재산	2023년 전체재산	증가액
국회의원	16.5억	19.7억	3.2억
국민	3.4억	4.3억	0.9억
	4.9배	4.6배	3.6배

2. 부동산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

-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가액이 큰 국회의원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77.4억 증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8.8억 증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7억 증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25.4억 증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4.3억 증가), 김홍걸 무소속 의원(24.1억 증가),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22.2억 증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21.2억 증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18.5억 증가),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17.5억 증가) 등임.

[표 6]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

		2020년	2023년	증감액	증가율	비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35,161,919	42,900,041	7,738,122	22.0	공시가 상승,서울시

						송파구 석천동 근린생활시설 매입
박덕흠	국민의힘	29,124,194	32,999,598	3,875,404	13.3	공시가 상승
박성중	국민의힘	5,420,608	8,219,405	2,798,797	51.6	양평구 단독주택 매도 서초구 분양권 매입
이철규	국민의힘	3,916,104	6,454,091	2,537,987	64.8	하남시 위례지구 근생시설 분양권 매입, 경기도 평택시 상가매입
정진석	국민의힘	5,924,104	8,355,424	2,431,320	41.0	공시가 상승
김홍걸	무소속	8,168,064	10,580,226	2,412,162	29.5	동교동 건물 용도변경 (단독=>근생시설) 공시가 상승
백종현	국민의힘	17,496,928	19,725,940	2,229,012	12.7	공시가 상승
정점식	국민의힘	6,228,083	8,350,974	2,122,891	34.1	공시가 상승
김형동	국민의힘	597,869	2,445,659	1,847,790	309.1	종로구 대지매입 후 건물신축
이현승	국민의힘	3,117,246	4,864,070	1,746,824	56.0	공시가 상승 경남 밀양시 대지매입

*볼드체는 전체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도 포함

■ 23년 기준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 중인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업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과다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국회의원의 과다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 과다 보유 기준으로 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로 구분하고 있음.
- 경실련 기준으로 2023년 재산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76명, 대지 보유 37명으로 나왔고,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9명임.
 - 국민의힘이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 중으로 파악됨.

- 한편, 건물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87명임.
 - 국민의힘 46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시대전환 1명임.
-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거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임대채무 중이더라도, 1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중 임대채무를 신고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 60명으로 파악됨. 부동산 과다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임.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등임.
-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과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이 중 지난 2022년 8월 경실련이 부동산 과다 보유한 46명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5명의 의원은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실사용임을 밝힌 바 있음¹⁾ 이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의원(44명)의 경우 과다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표 7]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 (23년도 기준)

	경실련 기준				과다보유자 중 임대채무 신고 (B)	실사용 및 임대여부 소명 필요 (A-B)*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과다보유 (중복 제외) (A)		
국민의힘 (112명)	31명	43명	18명	64명	38명	26명
더불어민주당 (169명)	9명	28명	18명	40명	17명	23명
정의당 (6명)	1명	2명	1명	2명	2명	0명
무소속 (7명)	2명	2명	-	2명	2명	0명
기본소득당 (1명)	0명	0명	-	0명	0명	0명
시대전환(1명)	0명	1명	-	1명	1명	0명
총 합계 (296명)	43명	76명	37명	109명	60명	49명

* 과다 부동산 보유하지만 임대채무는 신고하지 않는 49명 중 5명은 경실련에 소명해왔으며, 나머지 의원의 경우도 소명해주면 반영해서 발표할 수 있음. (지난 2022년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4개 상임

1)

위(국토위·기재위·산자위·농해수위)에 대해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의 의원에 대해 실사용 여부를 공개질의한 바 있음.)

- 국민의힘에서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기준에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은 총 16명임.
 - 3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김도읍, 박덕흠, 윤주경, 이만희, 조은희 등 5명임.
 -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영선, 류성걸,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양금희, 윤상현, 이인선, 이철규, 최춘식 등 11명임.

[표 8] 국민의힘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23년도 기준)

		2주택 이상	비주거	대지	임대채무 신고
3건 충족 (5명)	김도읍 (법사위)	0	0	0	0
	박덕흠 (농해수위, 정보위)	0	0	0	0
	윤주경 (정무위)	0	0	0	0
	이만희 (행안위, 정개특위)	0	0	0	0
	조은희 (운영위, 여가위, 행안위)	0	0	0	0
2건 충족 (11명)	강기윤 (보복위, 연금개혁특위)		0	0	0
	김영선 (기재위, 인구특위)		0	0	0
	류성걸 (기재위)	0	0		0
	박형수 (법사위)	0	0		0
	배준영 (기재위, 연금특위)		0	0	0
	백종헌 (보복위)		0	0	0
	양금희 (산자위, 첨단전략)		0	0	0
	윤상현 (외통위)	0	0		0
	이인선 (산자위, 예결특위, 기후위기)		0	0	0
	이철규 (산자위, 예결특위)	0	0		0
	최춘식 (농해수위, 예결특위)		0	0	0
1건 충족 (22명)	생략				

*볼드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기준에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은 총 8명임.
 - 3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이학영 의원임.
 -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김철민, 송기현, 안호영,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임호선 의원 등 7명임.

[표 9] 더불어민주당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23년도 기준)

		2주택 이상	비주거	대지	임대채무 신고
3건 충족 (1명)	이학영 (예결특위, 환노위)	0	0	0	0
2건 충족 (7명)	김철민 (행안위, 윤리특위)		0	0	0
	송기현 (산자위, 예결특위)	0		0	0
	안호영 (농해수위, 기후위기)		0	0	0
	우원식 (예결특위, 환노위)		0	0	0
	윤호중 (외통위)		0	0	0
	이상민 (외통위)	0	0		0
	임호선 (행안위)		0	0	0
1건 충족(9명)	생략				

- 정의당에서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기준에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은 총 2명임.
 -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 등 2명임.

[표 10] 정의당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23년도 기준)

		2주택 이상	비주거	대지	임대채무 신고
2건 충족 (2명)	배진교 (국방위, 예결특위)	0	0		0
	이은주 (운영위, 환노위)		0	0	0

*볼드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

- 무소속에서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기준에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은 총 1명임.

- 양정숙 의원임.

[표 11] 무소속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23년도 기준)

		2주택 이상	비주거	대지	임대채무
2건 총족 (1명)	양정숙 (예결특위, 정무위)	0	0		0
1건 총족 (1명)	생략				

- 임대채무를 신고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대업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없음. 따라서 받았다면 임대업 심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또 이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함.

■ 의정활동 기간(3년간) 부동산재산 추가 매입자

1.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재산 추가 매입 34명, 이들 중 11명 투기 의혹 검증해야

-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시기 이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을 조사했음. 21년도에 12명(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22년도에 13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1명), 23년도에 9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이었고, 모두 합치면 총 34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 추가 매입했음.
- 이중 전세를 살다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사용을 위하여 추가 매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다 문제라고 할 수 없음. 이에 경실련은 ①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②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③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투기 의혹이 짙다고 보고, 이들을 조사했음.
- 조사결과 21년도에 3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22년도에 4명(국민의힘 4명), 23년도에 5명(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 포함됨. 단 12명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소명하였음. 이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함.

[표 12] 3년간 부동산 재산 추가매입자 현황

	2021년 (中 부동산 과다 보유)	2022년 (中 부동산 과다 보유)	2023년 (中 부동산 과다 보유)	계 (中 부동산 과다 보유)	경실련 소명
국민의힘	3명(2명)	6명(4명)	6명(4명)	15명(10명)	1명 (실사용 소명됨)
더불어민 주당	8명(1명)	5명(0명)	2명(0명)	15명(1명)	-
정의당	0명(0명)	0명(0명)	1명(1명)	1명(1명)	-
시대전환	0명(0명)	1명(0명)	0명(0명)	1명(0명)	-
무소속	1명(0명)	1명(0명)	0명(0명)	2명(0명)	-
합계	12명(3명)	13명(4명)	9명(5명)	34명(12명)	11명 소명 필요

- 21년도 추가 매입자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단독주택 1채, 빌딩 1채, 연립주택 1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근린생활시설 1채 추가 매입하고 연립주택은 매도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2020년 근린생활시설 1채, 아파트 2채, 상가 1채 등 보유 상태에서 2021년 경기도 하남시 하암동 개발사업지구 분양권 2권 매입 및 상가 1채 매입함),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2020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1년 경상북도 상주시 아파트 1채 추가 매입)이 있음.
- 22년도 추가 매입자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2021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2년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대지 신규 매입),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2021년 아파트 1채 등 보유 상태에서 2022년 대구시 북구 침산동 오피스텔 1채 매입),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2021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2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 1채 매입) 했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2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1채 구입했으나 2022년 8월 경실련에 ‘지역구 활동을 위해 추가매입’ 을 밝혀 소명됨.
- 23년도 추가 매입자에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2022년 상가 11채, 근린생활시설 1채, 숙박시설 1채 보유 상태에서 2023년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숙박시설 분양권 추가 매입), 배진교 정의당 의원(2022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3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아파트 1채 매입),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2022년 아파트 2채 보유 상태에서 2023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1채 매입하고 아파트 1채 매도함),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2022년 아파트 분양권 및 지분소유 등 3채, 농지 및 대지 등 보유 상태에서 2023년 대지 매입),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2022년 아파트 1채, 단독주택 1채 보유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1채 구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채 구매 등)이 있음.

[표 13] 부동산 과다 보유자 중 3년간 부동산 재산 추가매입 현황

이름	정당	매입 년도 이전 보유	추가 매입 현황				비고	
			매입 연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현재가액
박정	더불어 민주당	단독 1 빌딩 1 연립 1 임야 1	2021년	배우자	근린생활시 설	서울시 송파구 선천동	2,220,000	연립1 증여 (2021)
이철규	국민의 힘	근생 1 아파트 2 상가 1 농지 1 임야 1	2021년	배우자	근린생활시 설(분양권)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 위례택지개발사업지 구	377,520	
				배우자	근린생활시 설(분양권)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 위례택지개발사업지 구	160,160	
				배우자	상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608,900	
임이자	국민의 힘	아파트1	2021년	본인	아파트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65,000	
김형동	국민의 힘	아파트1 대지1	2022년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 동	920,000	
양금희	국민의 힘	아파트 1 임야 1 대지 1	2022년	본인	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90,000	
윤창현	국민의 힘	아파트 1	2022년	배우자	오피스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66,000	
이양수	국민의 힘	아파트 1	2022년	본인	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10,000	실사용 매입 해명함
권은희	국민의 힘	상가 11, 근린 1 숙박 1	2023년	배우자	숙박시 설 (분양권)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234,660	
배진교	정의당	아파트 1 기타 1 임야 1 도로 2	2023년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 동	620,000	
엄태영	국민의 힘	아파트 2	2023년	배우자	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285,000	아파트1 매도 (2023)
이현승	국민의 힘	아파트 분양권 1, 아파트 지분	2023년	본인	대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72,432	
				본인	대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42,806	

		2, 농지 7, 대지 등 3		본인	대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62,353	
장동혁	국민의 힘	아파트 1 단독1 농지 6 임야 5	2023년	배우자	아파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98,000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175,000	

-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실사용을 위해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은 추가 매입한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원 등)을 소명하고, 실사용 여부를 밝혀야 함.
-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였음(제4조 제5항 신설).
- 하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2022년 현재 재산심사대상자 총 340명이 고, 이 중 소명요구 대상자는 30명이라고 밝힘. 이들에 대한 처분 결정은 보완명령(주의통보) 23명, 경고 및 시정조치가 4명이었고, 기타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는 0건임.

[표 12] 국회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통계

(단위 : 건)

연도	재산심사대상자	소명요구 대상자	처분 결정				조사의뢰
			보완명령 (주의통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2017년	392	30	-	-	-	-	미공개
2018년	391	41	-	-	-	-	
2019년	370	20	-	-	-	-	
2020년	719	66	-	5	4	-	
2021년	369	10	-	1	-	-	
2022년	340	30	23	4	-	-	

* 3월 15일 경실련 청구, 4월 11일 국회 공개

- 위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소명요구 대상자가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사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IV.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하면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을 공천배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없는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음. 특히, 불법재산 증식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자검증위원회에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예외없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른 정당들은 아예 후보자검증위원회가 없거나(국민의힘), 자격 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정의당).
- 이에 경실련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공천개혁운동을 예고하며, 21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부자, 임대업자 실태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공천 배제를 촉구할 것임.

<경실련 주장>

-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 중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에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
- 부동산 과다 보유하면서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기 바람.

- 의정활동 기간 무주택이 아님에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은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아니라면 직무 전념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을 추가매입한 경우 취득경위 및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심사내역 공개하라.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별첨]

■ 23년 기준 신고재산 상위 10명

[표 15] 21대 국회의원 23년 신고재산 상위 10명

(단위 : 천원)

	정당	부동산	비중	증권	비중	총 합계
안철수	국민의힘	4,085,515	3.0	126,699,782	94.1	134,709,604
전봉민	국민의힘	2,410,340	4.3	44,361,920	79.3	55,916,772
박덕흠	국민의힘	32,999,598	62.7	957,866	1.8	52,617,144
박정	더불어민주당	42,900,041	84.8	15,495,008	30.6	50,598,508
윤상현	국민의힘	3,135,374	10.5	23,894,827	79.9	29,914,409
백종헌	국민의힘	19,725,940	66.3	6,320,054	21.3	29,731,910
한무경	국민의힘	9,875,760	47.2		-	20,901,895
정우택	국민의힘	4324274		243295		14314204
강기윤	국민의힘	5,192,281	41.7	2,650,000	21.3	12,441,814
	합계	124,649,123	56.5	220,622,752	55.0	401,146,260
	평균	13,849,903	50.2	27,577,844	61.9	44,571,807

주 : 총합계액은 부동산, 증권 재산 이외 예금 및 채권, 채무 등의 재산이 포함된 금액

■ 23년 기준 신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단위 : 천원)

[표 16] 21대 국회의원 23년 신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정당	건물	토지	부동산 합계
박정	더불어민주당	42,886,438	13,603	42,900,041
박덕흠	국민의힘	7,383,450	25,616,148	32,999,598
백종헌	국민의힘	14,991,909	4,734,031	19,725,940
김홍걸	무소속	10,580,226		10,580,226
한무경	국민의힘	8,701,679	1,174,081	9,875,760
정진석	국민의힘	7,403,000	952,424	8,355,424
정점식	국민의힘	8,313,981	36,993	8,350,974
안병길	국민의힘	8,220,650		8,220,650
박성중	국민의힘	8,105,453	113,952	8,219,405
김기현	국민의힘	7,924,184	226,748	8,150,932
	합계	505,219,060	77,440,496	582,659,556
	평균	1,706,821	261,623	1,968,444

■ **과다부동산 보유자의 임대업 심사 현황**

- 실사용 외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사실상 주택을 처분해야 함. 하지만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실사용 외 부동산 과다 보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상 자기 보유 부동산의 경우 임대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3년 신고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총 87명이고, 본인 기준으로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총 57명임.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결과(22.11.2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19명이고, 신고건수는 총 29건에 불과했고, 국회의장은 신고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하여 ‘허가’ 해주었음. 법에 따라 본인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도,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총 57명 중 19명만 임대업을 신고한 것임.

[표 17] 임대채무 신고 현황

	본인 배우자 기준 임대채무자	본인 기준 임대채무자	임대업 신고
국민의힘(112명)	46명	34명	11명
더불어민주당(169명)	35명	20명	6명
정의당(6명)	2명	1명	0명
무소속(7명)	3명	1명	1명
기본소득당(1명)	0명	0명	0명
시대전환(1명)	1명	1명	1명
총 합계(296명)	87명	57명	19명(29건)

* 22년 10월 31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11월 11일 공개 결정

■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현황**

- 한편, 이해충돌 심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강한 상임위로 농해수위,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등으로 보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농해수위에 박덕흠(농해수위), 양호영(농해수위), 최춘식(농해수위) 등 3명, 기재위에 김영선(기재위), 류성걸(기재위) 등 2명, 산자위에 양금희(산자위), 이인선(산자위), 이철규(산자위), 송기현(산자위) 등 4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